

# 스타틴 제제의 선두주자 아스트라제네카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치와 중성지방(TG)치는 높고, HDL 콜레스테롤치는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고질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저지방식과 운동이 기본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는 약이다.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약의 종류를 스타틴이라고 구분 짓는데 당뇨병환자는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조절, 관리해야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크레스토(성분명 : 로수바스타틴)가 주요 스타틴 제제뿐만 아니라 타 스타틴 제제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타틴 제제의 일종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이 약은 현재 나와 있는 스타틴 제제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크레스토가 다른 고지혈증 치료 약제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당뇨병환자의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가 중요한 만큼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와 고혈압 약 아타칸을 만든 제약회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찾아 그동안 이런 성과와 개발되고 있는 연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약 90여 년 세월을 전문 의약품 개발과 제조,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순환기계, 항암제, 소화기계, 호흡기계, 정신신경계 분야에서 효과적인 약제를 제조하고 있고, 지난 1999년 한국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타틴 제제 '크레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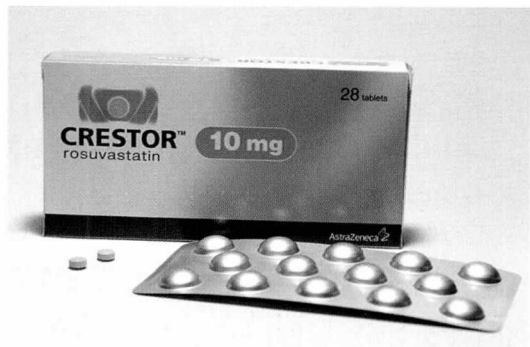


여러 분야의 약제들 중 지난 2004년에 출시된 '크레스토'는 현존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중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 때문에 '수퍼 스타틴'이라는 명칭도 지니고 있는 이 약제는 10mg의 용량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환자의 목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있어서 현존하는 스타틴 제제 중 가장 뛰어난 효과와 가장 경제적인 스타틴 제제로 입증 되었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스타틴 제제들은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치료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 모든 약물은 간에서 대사 작용을 거쳐 같은 경로를 통해 대사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스타틴 제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도 같은 경로를 거쳐 간다는 것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메디칼부 최현아 이사는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지혈증 환자들이 고혈압·당뇨와 같은 다른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치료제들도 같은 경로를 통해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약물 상호작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크레스토는 결과적으로 다른 대사경로를 택함으로써 이 약과 함께 복용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고혈압·당뇨병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스타틴 제제들은 A라는(CYP450 3A4) 대사경로를 통하는 반면 크레스토는 다른 경로(B)를 통해 대사 작용을 거쳐 다른 약물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다. 최이사는 "크레스토는 모든 스타틴 제제가 통과하는 A라는 경로를 택하지 않고 B(CYP450 2C9)라는 경로를 택한다"며 "이에 따른 약물 상호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실히 입증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렇게 다른 대사 경로를 택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더욱 뛰어나다고 말한다. 다른 약물과 같은 길을 거쳐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레스토만의 특징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더욱 강력히 하고 우수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개선 하며 환자의 콜레스테롤 목표 도달율을 극대화 시킬 뿐 아니라 부작용과 치료비용을 최소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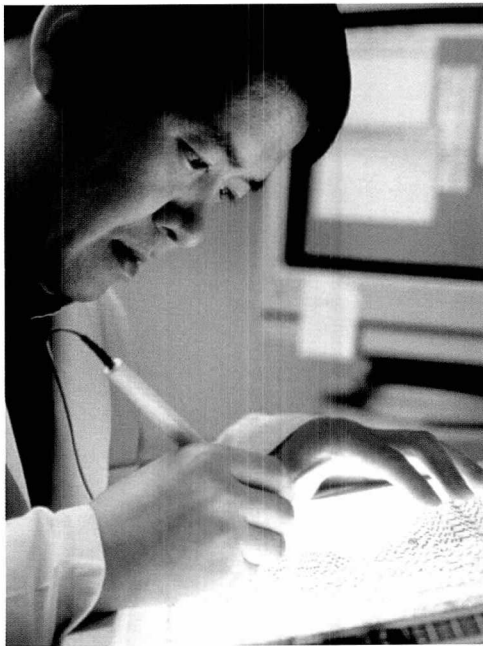
## 대표적인 고혈압 치료제 '아타칸'

아스트라제네카는 고지혈증 치료에 앞장서는 만큼 고혈압 치료에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시중에 잘 알려진 '아타칸'이라는 약품이 그것인데, 이 고혈압 약제는 다른 고혈압 약제와 비교해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와 심장보호 효과, 게다가 신부전 치료까지 함께 되어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복용한다.



## 당뇨인을 생각하는 기업

### '아타칸'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연구



아타칸의 경우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훗날 당뇨병환자의 망막증 예방과 치료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마케팅부 박광규 부장은 “현재 고혈압 치료제인 아타칸에 대한 당뇨병성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아타칸이 당뇨병환자의 망막증의 진행을 얼마나 억제하고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늬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 당뇨병환자의 망막증 예방약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의 디렉트(DIRECT)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데, 30개국에 소재한 임상기관에서 약 5천 여 명의 피험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결과는 2008년경 발표될 예정이다. 고혈압 치료제인 아타칸이 당뇨병환자의 망막증 진행을 억제하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당뇨병환자의 망막병증의 합병을 예방하고 지연시킨다는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신장의 포도당 흡수 억제를 통한 혈당강하제 개발  
아스트라제네카는 고지혈증·고혈압 치료제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제인 경구혈당강하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2009년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삭사글리틴’이라는 당뇨약제는 식후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제로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구혈당강하제의 여러 부작용들을 보완한 약제이다. 또 미국의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 제약회사와 아스트라제네카 협력 개발한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다파글리플로진’이라는 약제는 체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포도당을 체외로 배설시켜 혈당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형태의 당뇨병 치료제이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 환자에게 유리한 약제인데, 신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 배출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기존에 있는 당분흡수 억제제와는 다른 기전을 통해 시판된 약 중 최초의 대사방법을 택하고 있는 약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황수진 박사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부작용으로 탈락한 환자는 없었다”며 “시판되면 신장이 잘 관리된 환자에게 효능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과학·아동에 중점 둔 광범위한 사회사업

아스트라제네카는 약제 개발·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사업도 동참하고 있다. 각 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 건강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고, 각 부서와 분야별로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위해 가장 최선의 약품과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홍보팀의 강중희 부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사회공헌 중점은 건강, 과학, 아동에 두고 있다”며 “암환자 가족 장학생모집·대한암협회와의 심포지엄·암 극복 나누는 희망 축제” 등 여러 행사를 기획·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암환자 가족 대상 ‘희망샘 기금’ 3기 장학생을 모집 중이다. 이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함께 모집하는데,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저소득 암환자 가족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게 1명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게 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05년부터 총 2기에 걸쳐 53명의 ‘희망샘 기금’ 장학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3기 장학생을 모집에 10여 명의 장학생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기금을 통해 암환자 가족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지역 사회 내 복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암환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부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암·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해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각종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약회사가 되겠다”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당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광범위한 사회사업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각종질환의 환자와 가족들을 보듬어 안고 있다. 꾸준한 발전과 더욱 뛰어난 약제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완치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 글/홍지영 기자

